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Winter 2019 Vol.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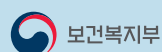
www.kofih.org

사할린에서 전한 포근한 울림



신북방 국가 보건의료 및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사업

KOFIH는 신북방 국가의 보건의료 개발협력 사업과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따뜻한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Winter 2019 Vol.51

www.kofih.org



14



18



22



24



26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정기간행물신고번호 서울 중 바 00157
재단발행자등록번호 정가-6-2019-1

발행인 추무진 | 편집인 최원일 | 발행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소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 7층 | 전화 02-3396-9700
기획·편집 KOFIH 경영기획부 02-3396-9830 | 취재·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발행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KOFIH Letter]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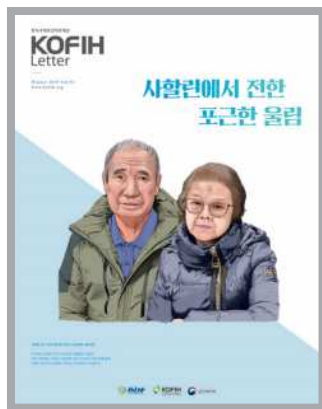


Contents

04	2019 KOFIH PROJECT MAP	KOFIH의 주요 사업 현황을 나타내는 사업지도
06	KOFIH LETTER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활약하겠습니다

Special Theme — 신북방 국가 뚝아보기

10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상생이 답이다
12	Global Report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통과 화합으로 KOFIH와 함께 향해하는 신북방 및 인도주의 실현 국가
14	KOFIH 특과원 생명에 대한 이끌림, 경의를 담아 -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 &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 컨설팅 사업
18	함께 그리고 멀리 경계를 지우고 도움을 나누다 -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20	리멤버 포에버 국경을 넘은 진심과 사랑이 모여 꽃처럼 피다 - 재외동포 어르신들이 전한 편지
22	아름다운 동행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따뜻한 마음이 모이다 - 2019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무료건강검진 지원
24	열정 36.5°C 1. 아세안 보건의료 개발협력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 2.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공행정 혁신 전시회
28	KOFIH WAY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방향성 - 보건의료분야의 신북방정책
30	신실크로드 미식로드 삶은 듯 다른, 동서양의 맛 신실크로드 미식 기행 - 해외사업 담당 임직원이 추천하는 신실크로드 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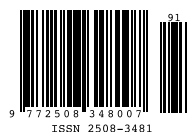
Cover story

최선의 마음과 최상의 가치로 재외동포 어르신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고국의 손길이 그리운 사할린의 어르신들이
오늘 더 건강할 수 있게, 내일 다시
활짝 웃을 수 있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곁에 있어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체온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선의 마음과 최상의 가치를 담아
KOFIH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벗이자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힘이기에.
언제나 곁에서 KOFIH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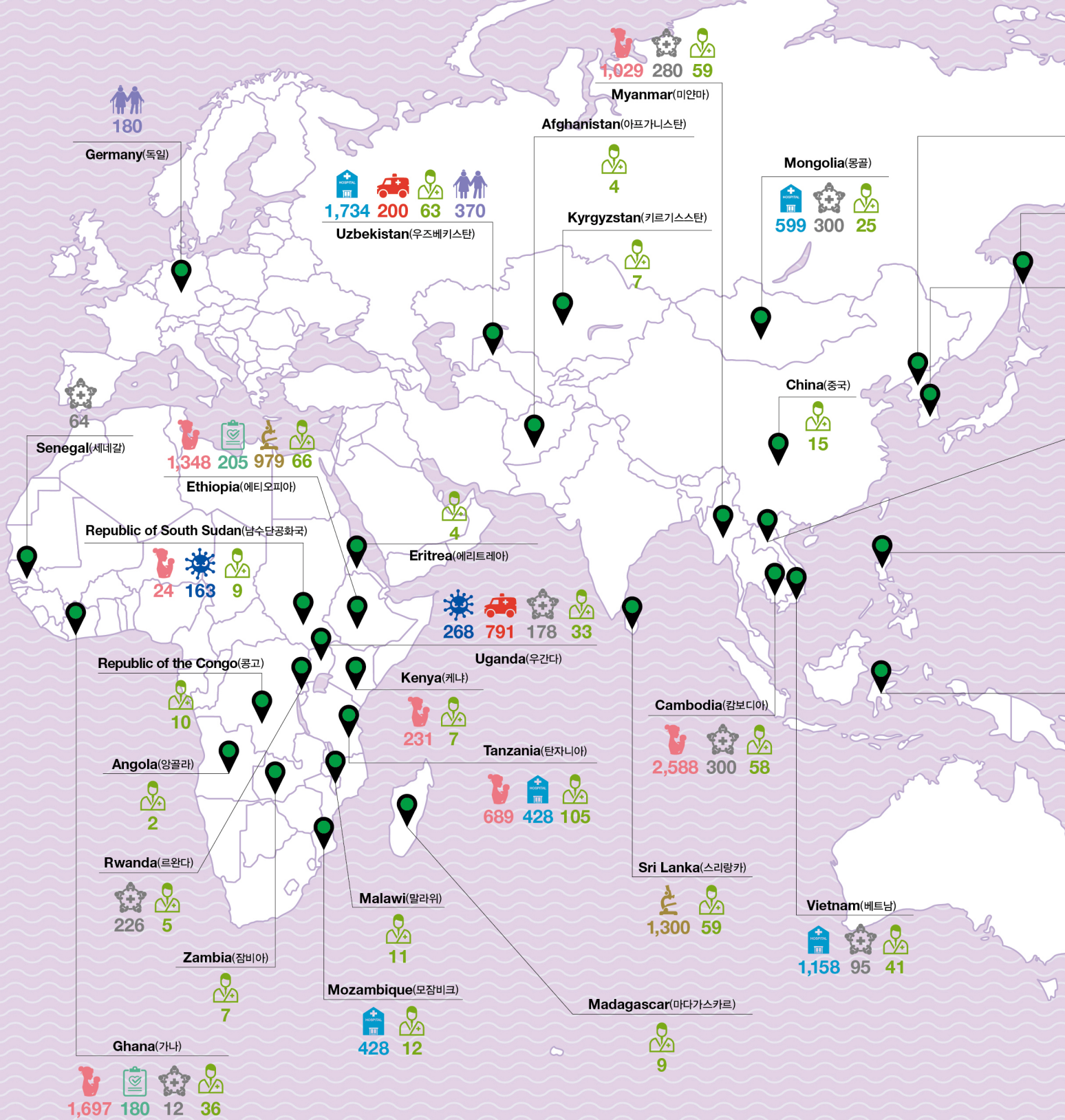
KOFIH —

32	KOFIH NEWS	함께 꿈꾸고 뜨겁게 달리는 2019 KOFIH - KOFIH의 주요 동향과 이슈
36	독자의 소리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37	아듀 2019	한 해 동안 KOFIH Letter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거 2004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단위: 백만 원)



모자보건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결핵 등 감염병
관리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민관협력사업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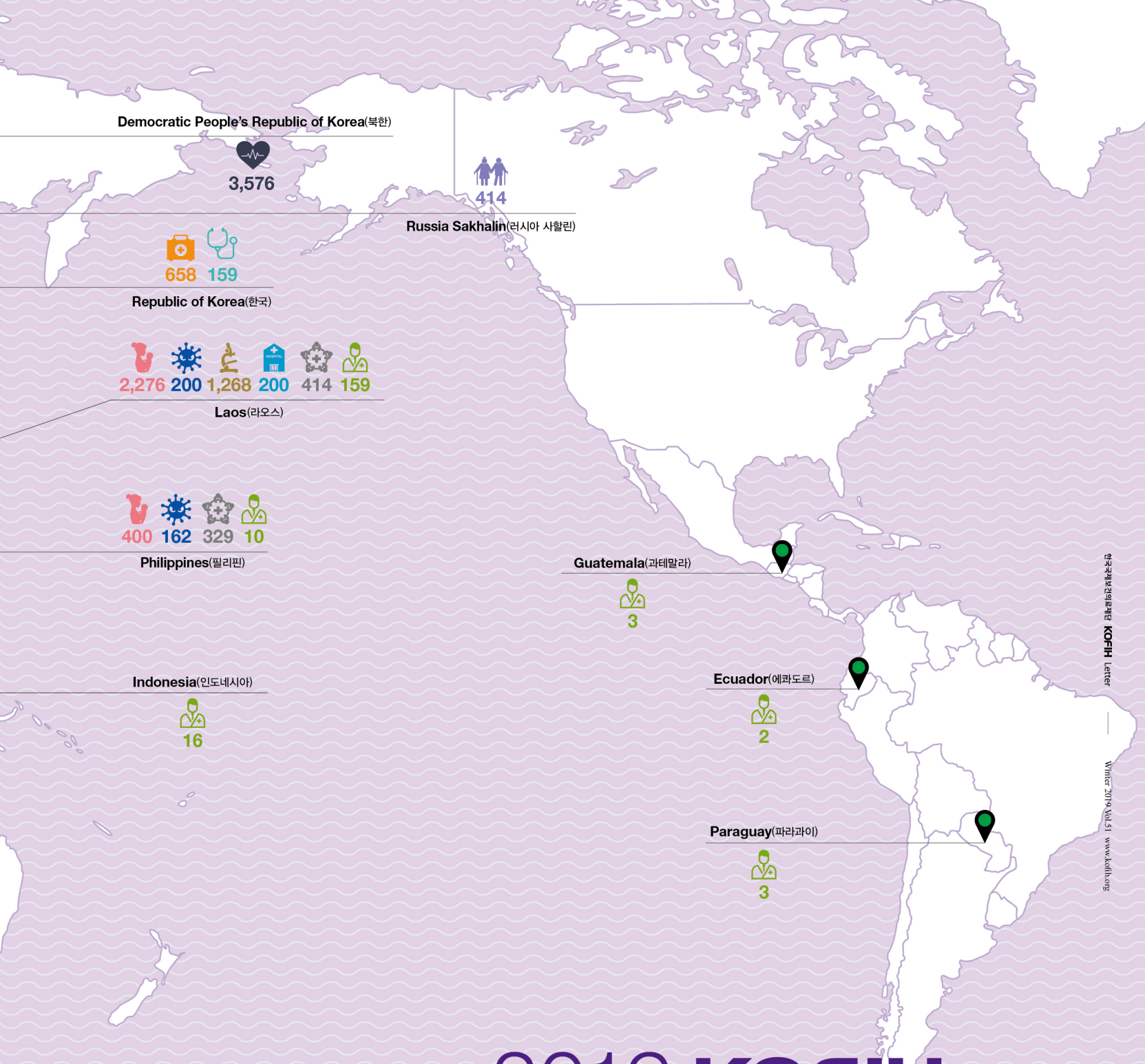
병원운영
컨설팅 사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단위: 명)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2007~2018)



2019 KOFIH PROJECT MAP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사업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KOFIH)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dedicated to the betterment of health and medical systems and bolster capacities for the people in partner countries.

(Unit: KRW million)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활약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짧기 만한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재단은 그간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성숙시켜 왔습니다. 지난 신남방 보건의료 ODA 특집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신북방 보건의료 ODA 및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중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난 4월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몽골 역시 지난 3월 국무총리의 방문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자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둔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할 몽골에서도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 컨설팅사업을 수행하며 핵의학실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 희생과 헌신으로 역사를 일군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 독일 파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건강 증진 및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는 동시에 한민족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한반도 건강 확보와 질병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함께 지구촌 상생 및 번영을 위한 길에 작게나마 건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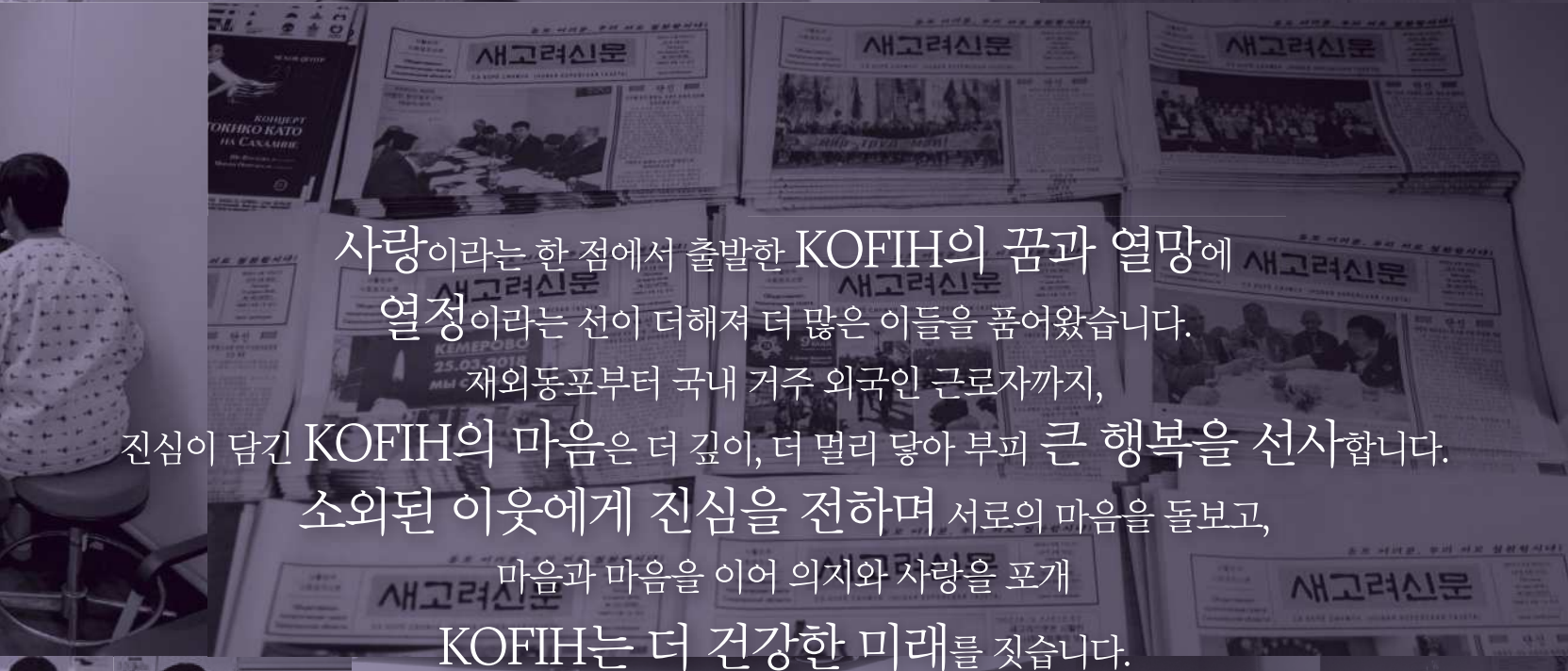
을 한 해도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故 이종욱 제6대 WHO 사무총장 특집편을 시작으로 지구촌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명감을 되새기고 신남방·신북방 보건의료 ODA, 아프리카 지역 사업, 기타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KOFIH의 협력사업을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때,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 무진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상생이 답이다

신북방 국가와의 보건의료 협력은 일방적이 아니라 국가별 협력 수요, 소득수준, 사회 발전 단계 등을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가 정부 외교 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신북방 국가의 상생을 위한 컨트롤타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7년 8월에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협력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방국가들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14개국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등 구소련 12개국과 몽골, 중국 동북3성 지역을 의미한다. 북방국가들의 경제규모(GDP)는 약 3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며 인구는 중국 동북3성(1.1억 명)을 포함하여 총 4억 명에 이른다.



KOREA



UZBEKISTAN



MONGOLIA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북방국가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공산주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국가들로서 몽골과 중국 동북3성을 제외하고 소련이 1991년 붕괴하면서 독립된 국가들이다. 그래서 구소련 국가에서는 대부분 러시아어가 통용되고 있다. 한편, 몽골에서는 현재 몽골어의 표기 체계로 러시아어의 키릴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비슷한 듯 다른, 다양성을 지닌 신북방 국가

흔히 ‘스탄(페르시아어로 지방 또는 나라라는 의미)’ 국가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으며 터키어와 같은 투르크어족(타지키스탄 제외)에 속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 서로 자기 나라말로 이야기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유사하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2009년에 투르크어족에 속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제기구인 투르크 평의회(Turkic Council)를 설립하기도 했다. 투르크 평의회 회원국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터키이며, 준회원국으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입돼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타지키스탄이 투르크 평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타지크어가 페르시아어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이 1937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각지로 강제 이주한 곳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다른 지역이다.

동슬라브족에 속하며 정교회를 국교로 하는 등 러시아와 혈통·언어·종교·문화 등이 같거나 비슷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소련에서 독립 후 러시아와 관계에서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반러시아 친유럽 노선을 지향하다가 크림반도 문제로 러시아와 분쟁 중이지만,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국가연합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하다.

카프카스(코카서스) 3국으로 불리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문화적 공통점보다는 차이가 크고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영토분쟁으로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언어는 아제르바이잔어는 투르크어족, 아르메니아어는 인도유럽어족, 조지아어는 남카프카스어족으로 다르며 종교도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다. 인구 400만 명의 작은 국가인 몰도바는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하고 있으나 루마니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소련에 병합되기 전 루마니아의 영토이기도 했다.

중국 동북3성은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을 포함한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약 160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북한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가는 길

보건의료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11.5%를 차지하며 한반도의 78배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국가지만 인구가 1억 4천만 명에 불과해 인구밀도는 매우 낮은 점이다. 그 결과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2018년 1월부터 원격 진료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한국의 KT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원격으로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도 비슷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한국의 의사면허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보건자문관(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북방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낙후된 보건의료체도를 개혁하고 있어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 북방국가들과도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러시아,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을 순방했다. 이러한 순방의 후속 조치로써 한국형 의료시스템 확산 및 보건의료산업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방국가 의료인 144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시행했고 그 결과 한국 의료기술 전수 및 의료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에 이바지했다. 또한, 북방국가들의 수요가 높으면서도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인 내과(암), 산부인과, 한국형 건강검진 센터 등 의료서비스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의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내 한국형 스마트 병원 컨설팅 및 위탁운영 예정, 함찬병원의 우즈베크 부하라 병원 개원, 청연한방병원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클리닉 개원, 몽골 시엘 불임센터 개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국 동북3성은 최근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요양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린성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여 창춘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조성하여 바이오, 의료 및 의약, 미용, 건강식품 등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향후에도 신북방 국가와의 상생과 협력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UKRAINE



RUSSIA



CHINA



MOLDOVA



BELARUS



ARMENIA



AZERBAIJAN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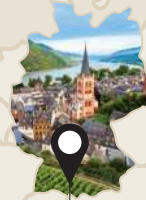
TAJIKISTAN



TURKMENISTAN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통과 화합으로 KOFIH와 함께 항해하는 **신북방** 및 **인도주의 실현 국가**

지극히 정성을 다할 때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KOFIH는 신북방 국가를 비롯해 재외동포 거주 지역 및 해외긴급구호가 필요한 지역에도 오랫동안 개발협력사업에 집중해왔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묵묵히 건강한 지구촌 만들기에 제 몫을 다하고 있다. KOFIH와 더불어 건강하게 성장 중인 신북방 국가와 그 외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국가를 소개한다.



통일로 하나 된 나라 독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도시와 왕국으로 나뉘었던 독일은 19세기에 하나로 통일됐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서독과 동독 둘로 나뉘었고, 1990년에 다시 통일됐다. 독일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고, 최근에는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 1963년, 서독에 공식적으로 광부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는 1966년 파견했다. 1977년까지 약 7,936명이 광부로, 약 10,032명(출처: 1986년 서독본 주재 한국대사관)이 간호사로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독일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인 교포 중 다수가 당시 파견 근로자와 그의 자손들이다.

● 독일에서 KOFIH는?

1960~70년대에 파독 근로자로 일했던 광부 및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과 생필품 지원 등의 방문보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별 워크숍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독일 수발보험 제도 가입을 지원하고 기초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파독 근로자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비단길이 지나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국토의 70%가 평탄하고, 사막과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은 달나라에서도 장사를 할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무역이 발달했다. 동양과 서양의 장사꾼들이 다니던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최고의 무역 중심지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안’으로 불리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다. 1930년대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우즈베키스탄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KOFIH는?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하여 국립아동병원의 개원준비 지원, 병원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원조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한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통해 응급의료인력 역량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한편,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아리랑 요양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리랑 요양원에는 강제이주 고려인 동포 1세대 및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땅 러시아(사할린)

사할린은 약 1세기에 걸쳐 켈트어 씨인 식민지배, 남북분단과 동서냉전, 민족이산의 상흔들이 곳곳에 지독하게도 배어있는 또 다른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이다.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남북으로 길쭉한 섬으로, 오후츠크해와 동해에 둘러싸여 있고, 대륙과의 사이에는 최단 거리 약 8km의 타타르 해협이 있다. 석유·석탄·천연가스·금속·수산물·임산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주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인이며, 한국인은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 한국 교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탄광 및 군수공장에서 혹사당하다가 종전을 맞이했다.

● 사할린에서 KOFIH는?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1세대 동포들을 위한 한국 초청 진료를 지원한다. 만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고령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진과 검진 결과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마교와 유목생활에 뿌리를 둔 몽골

아시아 중앙 내륙의 국가로, 북서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이룬다. 국토는 넓지만 인구는 적다.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가 된 국가다. 몽골인들은 대부분 티베트불교(라마교)를 믿는데 라마교에서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어 몽골인들 대부분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 독특한 음식문화가 있고,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또한 몽골에는 발레나 연극, 극장 등이 보편화돼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기는 편인데 몽골의 무용, 음악은 티베트 불교와 유목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몽골에서 KOFIH는?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 컨설팅 사업’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하여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의 성공적 개원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생명에 대한 이끌림, 경외를 담아

행복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 당장 내 손에 질 행복만을
쫓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웃의 안녕을 고민하는 편이,
발 딛고 사는 세상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더 현명한 방법일 테다.
그래서 KOFIH는 지원이 절실한 신북방 국가와의 공존을 실천했다.
행복이란 건강을 바탕으로 함을 알기에 어린 생명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다. KOFIH가 함께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몽골의 이야기다.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

생명을 살릴 선진 의료혜택을 더 가까이

희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 보다 나은 의료혜택으로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병원이 부족해서, 의술이 진보하지 못해, 시스템이 과거에 머물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아야 하기에 KOFIH는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부족한 게 많았다.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여러가지로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시급하다 판단된 건 국제적 수준의 아동병원 건립과 기술 지원. 아이들이 지금보다 선진화된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면 우즈베키스탄 아동 사망률이 분명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큰 사업이기에, KOFIH를 비롯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여러 관계기관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힘을 한곳으로 모았다. 바로, '21세기 한우친선 아동병원 운영 기술지원 사업'이다. 시작은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에 대한 차관 계약을 체결한 것. 이후 KOFIH는 유상 사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유무상 연계 협조에 시동을 걸었고, 2014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자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문과 컨설팅사업으로 내실을 더 단단히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운영을 위한 KOFIH의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개원 전에는 운영 지원이, 개원 후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현지에 사업 총괄 및 기술 지원 자문관을 파견한 덕분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정부 스스로 주인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국립아동병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 자문단도 위탁 운영 중이다. 이로써 국내의 여러 우즈베키스탄 유·무상 연계사업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앞서 언급한 컨설팅 사업은 2014년부터 향후 병원이 문을 연 이후인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병원운영 컨설팅사업 자문 워크숍

2021년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는 마지막 회차인 5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2월 국립아동병원이 첫 삽을 뜬에 따라 5차 사업에서는 공사 일정에 맞춰 건립 단계별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병원 운영과 관련한 인력들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진행함은 물론, 센터별 운영계획 수립 및 4차급 아동병원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홍보 방안 제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세워질 국립아동병원은 280병상 규모로, 심장, 신경, 신장·비뇨 3개 중심 센터를 비롯해 소아외과, 소아정형·성형외과, 안과, 핵의학과 등의 진료과가 구성될 예정이다.

불필요를 덜어 효율성 높인 응급의료체계

국립아동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될 터다. 쏟은 정성과 애정이 큰 만큼 긍정적인 시너지가 지속되도록, 아이들은 물론 타슈켄트 시민 모두가 선진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OFIH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Life and health

국립아동병원 직제 및 인력 운영 관련 자문 모습



응급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응급처치술 시연 모습



국립아동병원 부서별 역할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워크숍



응급의료인력 실습교육 활동

이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년 1월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통령 결의안을 발표한 후 사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타슈켄트시 내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총 24개로 집계된다. 병상으로 따지자면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15% 정도. 다만 주목할 부분은 구급차 탑승 인원수다. 인구 10만 명 당 69.7명으로 인력에 비해 출동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5배가 넘는 수치. 무상출동시스템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신고 당 의약품 소모 비용도 2016년 대비 5.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KOFIH는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뒤이어 빠르게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및 응급의료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마쳤다. 병원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국내 단기 초청 연수 진행,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환자의 경증 구분 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졌으며,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응급의료 실정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도 전담팀을 꾸리고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가 하면 비자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에 사업은 현재 순항 중이다. 더욱 쉽게 누리는 의료 혜택, 한층 나아진 삶의 질, 건강을 바탕으로 한 행복이 머지않았다.



몽골의 건강을 바로 세울 핵의학실

몽골 울란바토르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으로 세워진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곳이다. 현재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의료진의 우수한 역량 그리고 최신 기자재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KOFIH가 나섰다.

EDCF와의 유·무상 역할분담으로 병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공적개발원조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EDCF가 센터 건립 및 의료기자재 제공, 완공 후 유지보수 지원 같은 유상사업을 담당하고, KOFIH가 핵의학실 의료인력 역량 강화 및 운영 관련 기술자문을 책임지는 형태가 갖추어졌다.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 컨설팅 사업이 국무조정실 2015년 중점추진연계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013년 12월의 일이다. 이후 몽골 보건부 측의 사업제안서를 접수, 핵의학시설에 우선 집중하는 방향으로 2016년 협약을 체결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자립 내공을 빠짐없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친 역량강화사업이 총 24개월 동안 진행됐다. KOFIH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해 수행한 3차 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통해 협력국의 자립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의학의사, 방사화학자, 방사약사, 핵의학기사 등 핵의학실 의료 인력 5명을 초청해 6개월 동안 현장 실습 및 교육을 진행하고, 몽골 보건부 차관, 원자력청장, 국립병원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핵의학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자 초청 워크숍도 열었다. 또한 핵의학실 설비와 장비 설치 등에 관한 점검 및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인력의 역량을 끌어내고자 했다. 핵의학실 운영 체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도 주목할 부분. 이로써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KOFIH의 힘만으로는 버거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국내 유·무상 ODA 간 연계를 통해 개발 효과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세계는 모두 이어져 있으며, 손을 잡을 때 더 큰 힘이 발현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변화는 시작됐다.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재탄생한 핵의학실로 기대가 모인다.

고위급 정부관계자 초청워크숍



PET/CT운영자 직무교육 중인 장기 초청교육생



질환별 FDG PET/CT의 임상교육 발표 중인 장기 초청교육생(핵의학 의사)



핵의학장비 현장학습 및 기관방문 실습 교육



Special Theme — 함께 그리고 멀리





경계를 지우고 도움을 나누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 앞에 인간은 작고 약하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세계는 경계를 넘나들며 도움을 주고 또 받는다. 구조가 필요한 순간, 의료가 절실한 현장에서 뜨겁게 활약하는 KDRT의 이야기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참혹하게 망가진 땅에도 생명은 움튼다.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안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있는 한. 그래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는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외 재난지역으로 발 빠르게 출발한다. 티끌만큼의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KDRT 활동의 중요한 순간에는 KOFIH도 늘 함께였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KOFIH는 의료팀 인력 교육 및 편성을 담당한다. 인력풀 중 다수가 해외긴급구호 유경험자인 베테랑이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연습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건 물론, 교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도 열심이다.

특히 해외 재난지역 의료 활동에 대한 국제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WHO가 응급의료팀(EMT, Emergency Medical Teams) 기준 준수를 권고, 2016년부터는 WHO EMT 기준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해 추진 중이다. 참고로 EMT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재난 현장이나 응급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팀을 뜻한다.

10여 년 동안 213명의 전문 인력이 맹활약

KOFIH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6개국의 재난 현장에 힘을 보탰다. 미얀마의 사이클론 피해 지역을 시작으로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와 네팔,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강타한 필리핀,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진 시에라리온, 댐 사고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라오스까지 파견된 전문 의료 인력만 213명이다.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파견된 KDRT는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 역사상 최초의 전염병 대응 사례로 기록된다. 참여한 의료팀들은 이탈리아 NGO 단체가 운영한 치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15년 네팔에 강도 7.5의 대지진 발생으로 약 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역시 KDRT는 빠르게 움직였다. 여진의 공포와 풍토병 같은 위험 상황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었다. 참여 인력들은 본래의 직업을 기꺼이 멈추고 48시간 내에 KDRT 파견을 결정, 신속하게 재난구호활동에 착수했다.

사력을 다해 더불어 실현하는 인류애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외에, 심각한 사고 현장에서도 KDRT의 활약은 빛을 발한다. 가장 최근인 2018년 7월에는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 현장을 찾아 의료구호와 인명구조 등에 나섰다. 구성 인원은 총 11명.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각 1명과 간호사 3명, 약사 1명, 의공기사 1명, 물류 및 행정인력 3명이 함께했다.

6개 마을이 침수되고 6천여 명의 이재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사고 당시 우기였기에 텐트나 캠프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2차 질병 발생 위험까지 큰 상황이었다. 이에 KDRT는 하수나 식수 오염으로 수인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아타프주를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라오스 정부는 방역에 힘을 쏟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인근 WHO 캠프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과 빠른 전원이 가능케 한 점도 주목할 부분. 이처럼 씬 없이 열정을 쏟은 결과, KDRT는 9박 11일 동안 무려 2,486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의료 현장, 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고루 갖춘 KDRT의 활약이 누군가의 삶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이어진다.

국경을 넘은 진심과 사랑이 모여

꽃처럼 피다

독일,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보건 의료 서비스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KOFIH 직원들을 아들딸처럼 푸근히 맞아주시는 재외동포 어르신들.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독일, 파독 근로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 등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희망'이었다. 이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건강 배달부로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가는 KOFIH의 활동에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마움을 담은 편지들이 도착했다. 어르신들의 격려와 감사에 힘입어 KOFIH는 진정성과 열정을 담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많은 재외동포들을 따스하게 보듬어갈 것이다.

엄마의 품처럼 따스하게, 한민족을 품다

사할린 강제동원 잔류 1세대 동포와 독일 파독근로자 출신 재외동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 등 많은 재외동포 어르신들이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고, 외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KOFIH는 재외동포의 건강 증진과 민족적 유대감 고취를 위해 보건 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료 서비스 질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심과 정성을 쏟는다. 이로써 재외동포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필요한 손길을 건네며 마음을 다해 따뜻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는 KOFIH는 어르신들을 면밀히 살피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 고려인 독거노인요양원(아리랑 요양원) 지원사업과 파독근로자 보건 의료 지원사업(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수혜자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사업(초청진료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매년 더 단단히, 폭넓게 전개되는 활동으로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엄마처럼 푸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품어낸다. 오늘도 KOFIH는 열심히 현장을 오가며 단단하게 땅을 다지는 중이다. 그 땅을 딛고 더욱 건강하게 지내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가 눈에 선하다. 자식처럼, 곁에서, 한결같이 함께하는 KOFIH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재외동포 어르신들의 따뜻한 편지를 소개한다.

KOFIH의 배려로 아리랑 요양원에서 이어가는 행복한 삶!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편지 _최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어르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저는 1971년부터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큰아들은 연락이 두절됐으며 둘째는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0년에 아내와 사별 후 혼자 남은 제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거주지를 임대하지 못해 아파트를 팔고 줄곧 식당 경비실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 광고를 통해 KOFIH의 아리랑 요양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어 2013년 4월 12일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심한 지원과 배려 덕분에 현재 이곳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KOFIH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은 고려인에게 매우 귀중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랑 요양원은 행복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아리랑 요양원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모든 조건이 조성된 아리랑 요양원에서의 거주를 지원해 준 KOFIH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KOFIH의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번영,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거동 불편한 저를 항상 챙겨주시는 마음 잊지 않을게요!

독일에서 온 편지 _서명미 어르신

KOFIH와 재독한인간호협회가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귀한 선물에 늘 감사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는 한국의 식품을 사러 가기가 참 어려운데 항상 반기운 식품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좋은 일에 힘쓰시는 KOFIH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좋은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 평온한 삶을 얻게 해준 아리랑 요양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편지 _도조아 어르신

저는 1937년 정착한 날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기 시작해 은퇴할 때까지 아카데미극장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은 1942년 전쟁 중에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빵이 부족하여 굶게 되자 우리는 밀, 귀, 면화, 식용허브를 수집해 요리했습니다. 이후 제 자녀들은 모두 키르기스스탄에서 살게 되어 우즈베키스탄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카라카무시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타슈켄트주 스베들로브마을에 고려인을 위한 요양원을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아리랑 요양원을 생각하고, 12월 11일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 요양원을 만들어서 낙원처럼 살 수 있게 지원해 준 KOFIH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일은 많은 친구들이 있는 아리랑 요양원에서 행복한 삶을 얻은 것이지요. 천국에 사는 기분일 정도로 아리랑 요양원의 모든 서비스는 매우 훌륭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아리랑 요양원이 계속 존재하여 지금처럼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대사관, KOFIH의 지원으로 지난 11월 모국인 한국 방문의 꿈을 이루게 해주신 것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추석 선물에 눈물과 웃음이 한가득

독일에서 온 편지 _장경애 어르신

KOFIH 추무진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가을꽃들이 많이 노랗게 피어나는 계절이네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견뎌내며 해주신 수고가 저에게는 눈물겨운 선물이 되어 무엇이라 표현하기 힘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선물 받고 울면서도 싱글벙글합니다.

초청진료로 건강을 회복한 기쁨

사할린에서 온 편지 _하장내, 윤숙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사할린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사할린에 살던 대부분의 한인은 오랜 시간 인종차별 등으로 고생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중 사할린한인협회의 연락을 받아서 KOFIH에서 진행하는 초청진료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눈이 침침해 불편했는데 초청진료로 백내장 수술을 받아 현재는 시력도 좋아졌습니다. 초청진료로 한국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경동맥 협착을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요. 아내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어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위출혈이 생겨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청진료를 담당해준 병원에서 러시아 현지에서 두 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잘 안내해주어서 현재 대기 중입니다. 게다가 10년간 앓고 있던 하지정맥류 수술도 받았고, 러시아에서 받기 힘든 한방치료도 해주셔서 아내가 무척 좋아합니다. 초청진료를 위해 수고해준 KOFIH와 병원의 모든 분들이 잘 챙겨주신 덕분에 저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할린 동포들을 잊지 않고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할린에 살고 있는 더 많은 동포가 초청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활발한 KOFIH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2019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무료건강검진 지원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따뜻한 마음이 모이다

KOFIH와 시흥희망의료봉사단, 정왕보건지소, 센트럴병원이 지난 11월 24일 외국인 주민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엔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들의 발걸음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 분주하고 따뜻한 현장을 KOFIH Letter가 함께했다.

시흥시 외국인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인구 51만 명 규모의 경기도 시흥시는 외국인 비율이 10.5%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이곳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는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다. 평일에도 많은 외국인 주민이 찾는 곳이지만 무료건강검진이 열린 날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진료 시간 전부터 대기실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시흥외국인복지센터 강승호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이다 보니 외국인 주민의 참여율도 높습니다. 외국인 건강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국인 주민도 있기 때문에 무료검진이나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들도 서서히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라 예전보다 상황은 나아졌고, 더 좋아질 겁니다.”

이날 무료검진은 시흥시의 보건지소를 책임지는 6개 단체(시흥시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보건소)가 뜻을 모아 만든 시흥희망의료봉사단과 정왕보건지소, 센트럴병원이 KOFIH와 손을 잡고 진행했다. 외국인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 전파 방지와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있다.



1. KOFIH가 지원한 무료이동검진 차량에 외국인들이 줄지어 있다. 2.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혈을 하고 있다.

친구처럼, 곁에서, 한결같이

본격적인 검진이 시작되자 각국의 언어가 뒤섞인 대기 장소만큼이나 접수대도 수많은 대화가 오갔다. 봉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랜 봉사활동의 결과일까?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오늘 무료건강검진의 스태프들은 오랜 파트너처럼 착착 호흡이 맞았다.

진료순서는 접수 후 건강기초검사와 혈액검사를 진행했다. 혈액검사 결과는 추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다른 검진과목 선택하여 진료를 볼 수 있게 했다. KOFIH는 검사 장비와 이동검진차량을 지원하여 오늘 건강검진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차량은 치과 산부인과 X-ray 차량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장비, 심전도 측정기, 의료 소모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도 증가 추세다 보니 이 사업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OFIH 민간협력사업부 김명섭 대리가 외국인 지역민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외국인지원 임미경 팀장은 무료건강검진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통역봉사자 타파 슈시라(네팔)씨는 다른 나라에 와서 언어와 문화를 모르면 답답하기 마련인데 도움이 필요한 네팔 동포를 도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웃었다. 오늘의 성과는 복지센터 각국의 직원들이 SNS, 홈페이지 등 가능한 모든 소통의 창구를 이용해 알린 결과였다. 무료검진이 진행되는 내내 행사장 이곳저곳을 살피며 진행을 도왔던 시흥시 의사회 장재규 사무국장은 감회가 남다른 모습이였다.

“요즘은 마땅한 무료검진장소 찾기가 힘들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 하나가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각 단체의 조화가 좋아서 늘 감동받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봉사를 해왔지만 후배들이 계속 봉사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 속에서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편한 친구처럼 한결같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건강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국인 주민의 표정은 이곳에 들어섰을 때 보다 한층 더 밝아 있었다. 소외받는 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KOFIH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MINI INTERVIEW

● 정도영 | 시흥시 의사회 부회장, 시흥희망의료봉사단 간사, 의사

몸이 불편한 외국인들에게 희망이 되어!

2007년 이곳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와 손을 잡고 희망의료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6개 단체가 모여 매월 무료 진료를 진행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오늘처럼 무료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몸이 불편한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보람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KOFIH의 지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시흥희망의료봉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우트 캠프 | 네팔, 외국인 근로자

무료건강검진의 혜택에 감사!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한국어가 서툰니다. 주중엔 일하고 주말엔 이곳에서 사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오늘 무료건강검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방문했습니다. 그간 한국에서 병원에 자주 못 갔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종종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세안 보건의료 개발협력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 ‘동행,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희망을 함께 열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11월 13일,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는 KOIFI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최한 ‘아세안 보건의료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10년간의 ‘아세안 보건의료 개발협력’의 힘을 뜨겁게 발휘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성과 공유와 더불어 참석자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발전시켜 ODA사업의 질 제고와 여건 개선의 의지를 불태웠다.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10년!

지난 10년간 KOFIH는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보건의로 파트너’라는 사명에 발맞춰 이종욱 사무총장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코자 오직 한 길만을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해외재난 긴급구조 등 여러 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아세안 국가간 보건의로 개발협력분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OFIH는 지난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sal Health Coveroge) 달성을 향한 마음으로 고민과 노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다 함께 모여 한 방향을 보으로써,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나침반과 먼 곳을 당겨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마련해 끝까지 순항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힘을 쏟는 현시점에서, 이번 성과 보고회는 아세안 보건의로분야가 새롭게 도약하는 추진 동력으로 자리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외교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KOFIH도 아세안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사람, 상생번영, 평화’에 기여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다양한 협력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로 유관기관의 개발협력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KOFIH가 세계 보건의로의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온 일들은 측정할 수 없는 감동과 성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값지게 빛날 것”이라 축하하며 “보건복지부도 KOFIH와 현장에서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무진 이사장의 ‘효과적 보건의로 ODA를 향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기조 발제로 KOFIH의 미래 협력 전략을 공유하는 등 성과 공유 보고회는 점점 열기를 띠었다.

강한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념촬영 후 이어진 성과 공유 보고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보건의로 개발협력 성과의 첫 번째 세션은 KOFIH에서 그간 추진해온 모자보건사업, 감염병관리 역량강화사업, 보건의로 인적역량강화사업, 유무상 연계 보건의로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조병희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김상균 KOFIH 캄보디아사무소장과 김희진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 원장, 김훈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의 보건의로 개발협력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조성기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험사업1부 부부장은 유무상 연계보건의로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김상균 소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나라별 맞춤형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략으로 UHC 달성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발제를 통해 그간 한국의



1. ‘아세안 보건의로 성과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KOFIH 추무진 이사장. 2. 추무진 이사장이 ‘효과적 보건의로 ODA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참가자들 앞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3. 종합토론 시간에 KOFIH 캄보디아 사무소 김상균 소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4. ‘아세안 보건의로 성과 보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보건의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갈 길을 함께 관망하며, 지속적인 개발협력이야말로 UHC 및 SDGs 달성을 이끌어갈 원동력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진 가운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했던 아세안 국가 대상 건강보험 개발협력사업 성과 공유의 장이 열렸다.

장현식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UHC 개발협력 사업이 성과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발제가 이어졌다. 변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센터장은 ‘한국 건강보험의 아세안 개발협력 성과’를 짚어보았다. 그는 “서로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그 당시 하지 못했던 개혁을 새로 시작하는 아세안 국가들에 설게 단계부터 고려해보자”고 말했다. 강상백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한·아세안 개발협력 사업의 나아갈 길’을 고찰했다. 그는 경제지표 및 보건지표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 아세안 국가들의 UHC 시작점의 제도적 성찰을 꾀했다.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는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UHC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양질의 보건의로 서비스 제공에 대해 모색하며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쳤다.

소통과 화합으로 더 나은 아세안 보건의로의 미래를 품으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이 쉽 없이 불타오르며 행사는 갈무리됐다. KOFIH와 함께 나아갈 아세안의 향후 10년이 부쩍 기대되었다.

모두가 하나되어 꿈꾼 성장과 가능성의 내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공행정 혁신 전시회

한·아세안 축제의 장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11월 25일에서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세 번째 포문을 열었다. '동행,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한·아세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한·아세안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한 뜻깊은 행사에 KOFIH가 함께했다.

라오스 내무부 캄만 순빌릿(Khammanh Sounvileuth)장관이 KOFIH 부스에 방문하여 연수생(Khamsone Sotsay, 라오스 보건부)으로부터 KOFIH와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인도네시아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이종욱펠로우십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생(Sulastri, 인도네시아 보건부)



사람 중심, 평화공동체를 향한 걸음

아세안의 관심이 집중되어 뜨거운 열기로 넘실대는 부산 벡스코에서는 한·아세안 10개국이 모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09년, 2014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10개국 정상, 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석하여 정상회담과 양자회담, CEO Summit, 문화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더불어 한·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 한·아세안 패션워크,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K-POP 비즈니스 Summit, 스마트시티 페어,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전시회 등 40여 개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추무진 이사장과 연수생(Win Thiri, 미얀마 보건체육부)이 미얀마 연방정부사무국 관계자에게 KOFIH의 미얀마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KOFIH를 방문해 최원일 사무총장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캄보디아 썸 세타(Sak Setha) 내무부 수석차관에게 KOFIH의 캄보디아 협력 사업을 소개하는 연수생(Lach Chandeth, 캄보디아 보건부).

‘한·아세안’의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1967년 8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이 참가하여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1989년 아세안과 대화 관계 수립 후 2009년 한·아세안 FTA를 완결했으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더욱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는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아세안 보건의료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초석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 가운데 벙스코 제2전시장에서는 한·아세안 각국의 전자정부 및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소개하는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전시회’가 진행됐다. 아세안관 복지부를 대표하여 ‘사람 중심의 의료 ODA’를 주제로 참여한 KOFIH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 및 대표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성과·사례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故 이종욱 제6대 WHO 사무총장의 활동 사진으로 눈길을 끈 KOFIH 홍보부스에는 그간의 보건의료 사업을 공유하는 영상 자료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생들이 직접 부스 홍보에 나서 아세안 각국의 방문자들에게 모자보건활동과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KOFIH의 신남방국가 ODA 사업 활동 소개에 친밀하고, 밀도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전시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부스를 찾았다. 첫날에는 캄보디아 썸 세타(Sak Setha) 내무부 수석차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진영 행안부 장관, 라오스 캄만 순빌렛(Khammanh Sounvileuth) 내무부 장관, 미얀마 연방정부 사무국 관계자, 인도네시아 법무부 관계자가, 둘째 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과 부산시장 등이 방문해 ODA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한껏 실어주었다.

추무진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아세안국가 정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에 보건의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OFIH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재단 직원들은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옳은 일을 함께 하기 위한 KOFIH의 값진 정보와 우수성을 전파하려는 열성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의 혁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공행정 분야 상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KOFIH의 ODA 경쟁력을 더 높이고 단단하게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단초를 마련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동력 삼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아세안의 따뜻한 동행은 계속될 것이다.

MINI INTERVIEW

미얀마 Win Thiri | 보건체육부

KOFIH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현재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생으로서, 공공보건 분야 정책과정 연수과정을 수료 중입니다. 연수 기간 중에 이렇게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전시회’ 지원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굉장히 즐겁습니다.

특히 전시 부스를 찾는 아세안 국가 참관객들에게 KOFIH의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KOFIH와 이종욱 사무총장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KOFIH의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저 역시 KOFIH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방향성

유라시아의 통합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의의를 찾고자
진행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보건의료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거 단순히 호혜적 입장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Special Theme — KOFII WAY



글. 손명세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원장)

대한민국 보건의료 성장 역사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좋은 건강지표를 가지게 되었다. 건강지표 중 특히 출생 시 기대수명 부분은 영아사망률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는데, 한국은 특히 영아사망률이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영아사망률의 감소에 영향을 준 사회경제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이다.

건강 상태의 긍정적 변화는 영양개선과 위생상태 개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70% 정도의 이유가 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성공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감소다.

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시 90%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들의 저항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전을 같이 고려하여 보건의료수가를 저가로 유지하여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주요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내 산하기관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보유한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기록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상태정보 및 어떠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방법이 진료 때마다 지급하는 방법(Fee for Service)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분화된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일조했다.

그 밖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향상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은 군대를 대신하게 해 확보했고, 의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보건진료소의 경우 간호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건강지표를 갖게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다.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해당국가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프로그램과 의약품 공급 등의 ODA 중심의 협력 폭을 확장시켜 ICT 보건의료기술의 확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적 측면의 협력,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확산을 통해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 몽골 등 대부분의 북방국가는 오랜 기간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국가들이다.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보건의료체계에 비해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가 비용과 접근성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보건의료체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체계의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의 질’ 뿐 아니라 비용과 접근성에서도 의심쩍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의료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사회보험으로써의 건강보험 또는 건강보장제도를 마련하여 비용과 접근성을 다시 확보해 주는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할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급, 건강보험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급에 있어 북방국가의 경우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북방국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방국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네 가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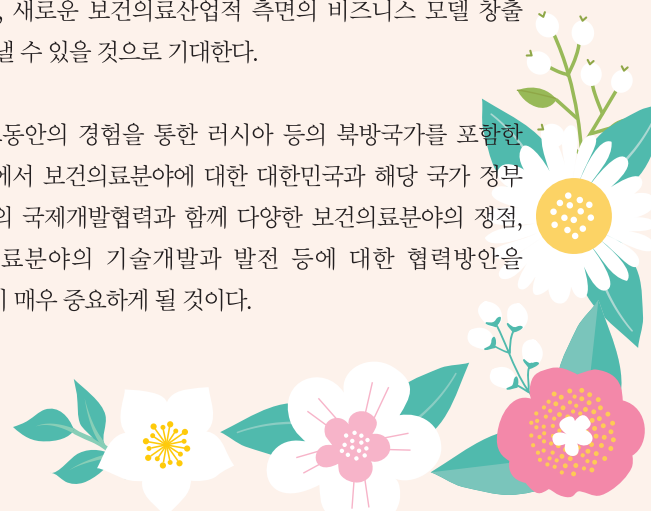
첫째, 대한민국이 종전 이후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의 협력이나 합작을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을 성장시켰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북방국가에 전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북방국가들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이미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적 측면과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기초로 한 제도를 정비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컴퓨터화된 시스템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다양한 국제원조기구 및 재단을 통해 유사한 도움을 받았듯 대한민국 역시 KOFII 등의 다양한 국제원조기구나 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원조활동 및 의료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북방국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영상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KOFII와 같은 단체가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계를 통해 현지 인력이 추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문역할을 함께 수행할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의료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역량과 인프라, 성과는 독일의 제조기술, 고도화된 설비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표준화, 새로운 보건의료산업적 측면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러시아 등의 북방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국제개발협력과 함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쟁점, 미래 보건의료분야의 기술개발과 발전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해외사업 담당 임직원이 추천하는 新실크로드 별미 담은 듯 다른, 동서양의 맛 新실크로드 미식 기행



지구촌 건강을 위해 확산되는 KOFIH의 활동 배경은 新실크로드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1세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가까운 사할린부터 머나먼 독일까지. 그곳에는 때론 친근한 고국의 맛으로, 때론 이색적인 이국의 맛으로 풍성함을 선사하는 음식들이 공존한다. KOFIH 해외사업 담당 임직원이 추천하는 新실크로드 별미를 소개한다.

몽골, ODA사업부 박찬진 주임이 추천하는 오랜 시간 삶아내는 전통 양고기 ‘허르헅’

허르헅(Horhog)은 양고기와 감자나 당근 등의 야채를 뜨겁게 달군 돌(초토)과 함께 오랜 시간 푹 찌내는 몽골의 전통 음식입니다. 몽골 유목민이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키우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손수 해체하여 대접하는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민의 집(게르)에 들러 허르헅을 맛보는 진귀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한민족협력사업부 이정미 대리가 추천하는 바삭바삭한 독일식 족발 ‘슈바이네학센’

독일의 축제나 비어하우스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인, 독일식 족발 요리 슈바이네학센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인 요리로,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러시아 사할린, 경영기획부 김정운 대리가 추천하는
쫄득쫄득한 맛이 일품인 ‘킹크랩’**

3만여 명의 한인 공동체가 사할린의 문화와 사회에 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 재래시장 등 곳곳에서 러시아식 셀러드와 함께 김치, 고사리 등 한국식 반찬이나 식재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로 둘러싸인 사할린에서는 갖가지 지역특산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과 입을 사로잡을 별미인 킹크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 김나영 원장이 추천하는

한국의 잔치국수와 닮은 우즈베키스탄의 냉면 ‘국시’

여름이면 고려인 식당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식당 어디에서든 값싸고 푸짐한 국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시는 식초와 간장으로 맛을 내고 차가운 육수에 양념한 고기, 고명, 오이, 양배추, 토마토 등을 올려 먹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요리로,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여름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고려인의 잔칫날이나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향신채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주문 시 미리 빼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Shoshakhzod Shomansurov 직원이 추천하는

비타민이 풍부한 볶음밥 ‘오쉬’

우즈베키스탄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요리는 바로 오쉬(Osh)입니다. 우즈베키스탄어로는 오쉬 또는 팔로브(Palov)라고 하지만, 러시아어인 ‘בלור’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 식당은 타슈켄트에서 유명한 타슈켄트 타워 바로 옆에 위치한 Central Asian Plov Centre입니다. 오쉬는 쌀에 채 썬 당근과 고기, 향신료를 넣고 기름에 볶아 낸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입니다. 한국에서 먹는 볶음밥보다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기름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오쉬에 기름기가 없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솥 밑바닥에 가라앉은 기름을 떠서 일부러 밥에 부어주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은 기름이 많으면 싫어하셔서 윗부분만 살짝 기름이 없게 담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참고할 점은 오쉬는 탄수화물, 비타민 B1, 비타민 B9 등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많기에 빵과 토마토 샐러드인 ‘아치츠크(Achichuk)’도 같이 주문해야 하며, 오쉬 한입 후 아치츠크와 함께 빵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며 달리는 2019 KOFIH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KOFIH의 빛나는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제5차 자유학기제 개최



제5차 자유학기제가 지난 10월 31일 재단 6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문영여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위원 등 1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재단과 재단 사업 설명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열렸다. 특히 故 이종욱 제6대 WHO 사무총장과 WHO 소개를 통해 청소년 국제기구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0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는 재단 소개를 시작으로 이종욱 기념관 관람, ODA 사업부 및 평가연구부 사업 설명과 사례 공유, 국제개발협력 체험활동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2019년 제3차 사회공헌활동

지난 10월 30일 용산구에 있는 아동보육시설인 혜심원에서 제3차 사회공헌활동이 펼쳐졌다. 재단 임직원 22명이 참가한 사회공헌활동은 혜심원 원내 청소와 식자재 운반 및 손질, 초등학교 4~5학년 대상 학습지도, 유아 대상 식사 및 놀이 활동 보조, 유아 목욕 활동 지원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재단은 혜심원에 유아용 로션 및 제철 과일 등 35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2019년 이종욱펠로우십 통합워크숍

이종욱펠로우십 통합워크숍이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경주시에서 열렸다. 연수생 50명과 재단 임직원, 강사 등 총 64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워크숍 강의'와 '경주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워크숍 강의는 각국 보건의로 인력 대표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고, 능동적으로 본국 보건의로 발전에 참여하기 위한 각오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연수생들은 강연을 통해 보건의로 인력으로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그룹 내에 공유했고, 본국에서의 보건의로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또한 천마총과 석굴암, 불국사 견학 등 경주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9년 KOFIH 임직원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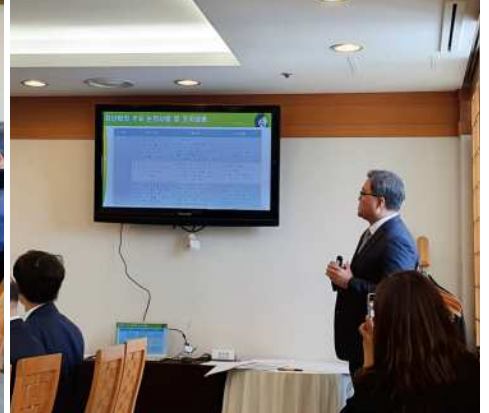


2019년 재단 글로벌개발협력본부 워크숍과 재단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 호텔과 영종 스카이 리조트에서 각각 열렸다. 워크숍 시작에 앞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단체협약식이 체결되어 임직원 단합과 조직문화 제고에 박차를 가했다. 보건복지부 이해희 사무관과 재단 임직원 39명이 참여한 글로벌개발협력본부 워크숍은 재단 해외사업 공유 및 해외사무소별 소개부터 2020년

글로벌개발협력본부 안건 공유와 논의, 유무상 연계사업 성과 사례 발표와 논의, 2020년 실행 과제 논의와 발표, 부서별 향후 사업수행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재단 임직원 간 소통강화 및 팀워크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된 재단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에는 45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2020년 경영평가 컨설팅과 전산분야 KOFIH 트렌드에 대한 교육과 분임 토의 등이 이뤄졌다.



2019년 제2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지난 11월 2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2019년 제2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재단 이사장인 추무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10명과 배석 13명 등 총 23명이 참가한 위원회는 지난 회의 결과 및 이행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윤리·인권경영 추진현황보고, 지침 개정 심의 등이 진행됐다. 또한, 2020년 윤리인권 이행관련 위원 제언과 기타 운영관련 제언 사항 및 차기회의 일정 논의로 위원회가 마무리됐다.

2019년 제4차 국민참여혁신단 회의



지난 12월 4일 재단 6층 중회의실에서는 2019년 제4차 국민참여혁신단 회의가 개최됐다. 국민참여혁신단 8명과 재단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결과의 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2019년 혁신보고서 수립현황과 혁신경영 이행실적 점검 보고 등이 진행됐다. 재단은 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19년 KOFIH Letter 가을호를 읽고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억하며 더 나은 KOFIH Letter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KOFIH Letter 가을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강현숙 (경기 시흥시)
길필순 (부산 북구)
김용진 (강원 춘천시)
모하나 (인천 부평구)
백귀혜 (전남 장성군)
안세용 (서울 영등포구)
이준석 (경기 의정부시)
이춘성 (서울 구로구)
장서인 (경기 시흥시)
최영희 (경기 파주시)

※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자유롭게 써주세요.

보낼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3층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김용진(강원 춘천시)

신남방국가 5개국에서 KOFIH가 국민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의료체계, 시설관리, 모자보건증진, 결핵관리 등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국가와의 관계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아세안 국가의 보건의료 연수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한국 보건의료 분야에도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는 KOFIH에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강현숙(경기 시흥시)

KOFIH가 라오스 어린 생명의 존엄을 지켜냈다니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욱펠로우십의 지식을 잇고 또 잇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아마 라오스의 부모들도 KOFIH의 이런 따스한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정말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하니 몽클합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신남방국가에게는 KOFIH가 바로 온돌입니다. 희망 온돌에 불을 지피는 소식 계속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희(경기 파주시)

KOFIH의 발걸음이 유익하고 바람직한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현해 나아가서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 관련 글을 흥미롭게 읽었어요. 캄보디아의 모자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KOFIH의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KOFIH의 건강하고 힘찬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춘성(서울 구로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는 미얀마의 보건의료 현장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사에 나온 곳이나 주민들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거란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사업들이 미얀마 전체로 퍼져나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현지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안세용(서울 영등포구)

현대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담긴 기사 '열정 36.5℃'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다음 호에도 알차고 풍부한 소식 많이 기대할게요.



● KOFIH 경영기획부 | 김정윤 대리

건강한 지구촌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 이종욱들에게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네 번의 KOFIH Letter 특집호를 기획하며
故 이종욱 제6대 WHO 사무총장의 유지를 되새기고,
재단이 수행하는 지역별·정책별 보건의로 지원사업을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본부에서 고군분투하고, KOFIH Letter
지면으로 재단의 활약을 알리는 데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작은 이종욱들이 보건의로 항상
기여하는 매 순간을 예쁘게 꾸며준 이팝과 꾸준히 관심
가져주신 KOFIH Letter 독자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제게도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선한 이들이 일궈가는
건강한 지구촌을 꿈꾸며 새로운 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을 2020년을 기대합니다.

하루 2019 한 해 동안 KOFIH Letter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한 2019년이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KOFIH Letter 제작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의
애정 어린 마음을 기억하고자, 도움주신 분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2020년에도 KOFIH Letter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을 담아 한층 더 성장하겠습니다.



● ㈜이팝 기획팀 | 이영경

KOFIH와 함께 세상 모든 아이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지난여름, 미디어로만 접했던 아프리카의 열악한
보건의로 현장을 직접 마주하면서, 우리가 응당 누리는
권리가 그들에게 기쁨이자 감사가 되는 상황에 허탈함과
안타까운 감정이 교차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동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해 애쓰셨던 故 이종욱 사무총장님과 그
권리를 존중하며 열성을 쏟는 KOFIH의 모든 분들께
다시금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계의 벽 너머에 있는
희망, 내일이라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그 문을 여는 KOFIH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KOFIH 임직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훈훈한 온정이
멀리멀리 퍼져 2020년의 찬란한 봄을 부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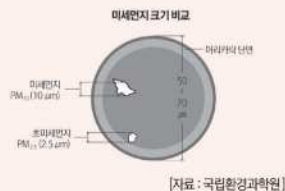
심뇌혈관질환자 미세먼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뇌졸중, 심부전을 앓았거나,
혈관우회로술(bypass-surgery), 혈관성형술 등 심뇌혈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



1 미세먼지란?

공기 중 먼지는 지름이 10 μ 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μ 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뉘며, 주로 인위적 활동(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주방요리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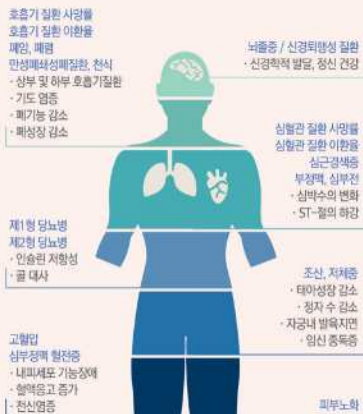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2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왜 더 위험할까요?

먼지가 직접 닿아서 피부, 눈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 세포 내로 침투도 가능하여 여러 장기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심근경색을 포함한 기존의 허혈성질환, 심부전, 부정맥 및 뇌졸중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 노출은 심뇌혈관질환의 발병, 증상악화, 사망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미세먼지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평소 건강관리 및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세요.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주의하세요.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세요.

보건용마스크는 개인의 질환과 증상에 따라 초음파 등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 발생 시에는 마스크를 즉각 벗고 의사와 상담한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세요.

미세먼지 '나쁨'일 때,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세요.

장시간 또는 심한 육체활동을 피하세요.

적당한 물을 섭취하여 체내 노폐물의 배출을 돕도록 하세요.

가슴 압박감, 흉통, 심박동이 빨라지거나 두근거림,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 등 증상 악화 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실내에서는...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과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으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가끔씩 자주 환기를 해주시고 물걸레로 청소하세요.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흡연을 삼가고 간접 흡연 역시 피해주세요.

음식을 조리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합니다. 환풍기를 작동하거나 환기를 더 자주 해주세요.

실외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매우 나쁨', '나쁨'일 경우 외출이나 실외 운동은 삼가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장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출퇴근 시간대 외부 활동은 피해주세요.

외부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달리는 것 대신 걷는 것과 같이 조금 덜 힘든 방법을 선택하세요.

불필요한 차량 이동은 자제하고 꼭 해야하는 경우 창문을 닫고 차량 내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미세먼지 농도 및 행동 요령

예보내용		농도별 예보등급 (μg/m³)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요령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적절한 치료 유지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가급적 실내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천식 등)]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이 **똑똑**해지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 습관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01

신속 통지

▶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시 한 |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 | 통지항목 |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 시점 및 그 경위
 - 3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4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5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02

긴급 조치

▶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 긴급 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

03

대량 유출

▶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www.privacy.go.kr)에 신고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행정자치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해졌습니다

보호

-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 부실시공
-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 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이의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허위·과장광고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불법 하도급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국민권익위원회



“KOFIH의 관심과 배려 감사합니다!”

무료이동검진 차량 서비스에 서툰 한국말로
환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नेपाल의 사우트 캣 씨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
낯선 땅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워
건강검진은 엄두조차 못 내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KOFIH는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건강한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손을 마주 잡아 줄 때 지친 어깨에 힘이 실리듯이,
KOFIH는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마주 잡아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KOFIH가 함께합니다.